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28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IT를 넘어서는 글로벌 에너지 섹터의 실적모멘텀

미국의 1주 리비전은 +0.03%, 1개월 변화율은 +0.16%로 완만한 플러스 흐름을 유지. 다만 내부적으로는 북미 에너지 +0.12%와 정보기술 +0.05%가 상향을 주도한 반면 자유소비재, 통신서비스, 소재는 각각 -0.01%를 기록하며 업종별 편중이 심화

Valero +11.1%, Phillips 66 +4.1%, Marathon Petroleum +3.7% 등 정유 3사가 미국 이익상향분의 대부분을 차지. 디젤 크랙스프레드가 정상 범위인 배럴당 10~20달러의 5배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정유업체의 실적 추정치가 큰 폭으로 상향. 이 밖에도 해운, 반도체, 용기·포장, 상사, 바이오텍, 소프트웨어 업종의 이익 상향이 부각된 반면 국제유가 상승에 부담을 받는 항공과 자동차 등은 하향 상위권을 기록

Costco: 9/24 장 마감 후, 실적 호조, 리비전 +0.39%

FY2026 4분기 EPS는 6.75달러로 전년 동기 5.87달러를 상회. 매출은 939억달러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동일점포 매출은 9.4%, 조정 기준으로는 6.7% 증가. 디지털 매출은 19.5% 증가했고 멤버십 수수료 수입은 18억5,000만달러를 기록. IEEPA 관세 환급에 따른 주당 0.15달러의 일회성 이익이 포함

Cintas: 9/23 장 시작 전, 6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리비전 +0.85%

FY2027 1분기 매출은 30억1,000만달러를 기록. FY2027 조정 EPS 가이드언스를 5.45~5.54달러로 상향했으며 마진 확대를 기반으로 EPS가 13% 증가. UniFirst 인수 종결 전 실적

AutoZone: 9/22 장 시작 전, 매출 하회, 리비전 -1.9%

FY2026 4분기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관세 환급 효과가 포함됐으며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 연간 매출은 200억달러를 돌파했고 신규 점포는 374개를 기록했으나 DIY 트래픽은 5% 감소. 상업용 부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마진은 개선

Volkswagen: 9/25, 2026년 가이드언스 대폭 하향, 리비전 -9.6%

2026년 영업이익률 가이드언스를 기존 4.0~5.5%에서 최대 1%로 하향. Porsche 영업권 손상 60억유로가 3분기에 반영되며 특별손실은 총 100억유로에 달할 전망. 매출 전망치는 3,150억유로로 전년 3,219억유로를 하회. 중국 부진과 BEV 전환 속도가 영향을 미쳤으며 Porsche는 4,000명의 추가 감원을 발표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해운** (1주 +0.12%, 1개월 +0.66%)

호르무즈 통항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VLCC 일당이 65만달러에 근접했고 컨테이너 운임도 동반 상승. 선박 우회 운항에 따른 실질 공급 축소가 지속됐으며 1개월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상향률을 기록. 커버리지 내 해당 대형주는 없으며 Maersk 등은 유니버스 외 종목

반도체 (1주 +0.06%, 1개월 +0.56%)

1개월 기준 전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은 상향률을 기록. HBM과 서버 DRAM 가격 강세가 메모리에서 후공정 장비로 확산

→ Micron +1.33%(1년 +887.8%), Advantest +1.73%, MediaTek +1.32%, Tokyo Electron +1.29%, AMD +1.20%, Infineon +1.05%, Nvidia +0.91%(1개월 +15.9%), Applied Materials +0.90%, Broadcom +0.81%, Marvell +0.79%(1개월 +10.2%), SK하이닉스 +0.53%, ASML +0.53%, TSMC +0.33%를 기록

용기·포장 (1주 +0.05%, 1개월 +0.31%)

펄프와 수지 등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판매가격이 유지되면서 스프레드가 개선. 커버리지 내 해당 대형주는 없음

상사 (1주 +0.03%, 1개월 +0.11%)

자원가격 안정과 배당·자사주 정책이 지속. Itochu +0.10%, Mitsui +0.08%를 기록한 반면 Mitsubishi Corp는 -0.04%로 1주 기준 혼조를 보였으며 1개월 기준으로는 +2.60%

에너지장비·서비스 (1주 +0.03%, 1개월 +0.16%, SLB +0.93%)

중동 공급 차질에 따른 증산 압력으로 유전서비스 수주가 회복

바이오텍 (1주 +0.03%)

업종 전체의 상향 폭은 제한적이지만 Gilead의 EPS 추정치는 1주 +2.86%, 1개월 +13.7%, 3개월 +68.2%로 큰 폭 상향. HIV 치료제 성장에 근거한 투자이견 상향과 Lenacapavir 침투율 상향이 추정치에 반영

산업복합기업 (1주 +0.03%, 1개월 +0.40%)

주간 상향 폭보다 1개월 누적 상향 폭이 큰 흐름. Hitachi +0.35%, Mitsubishi Heavy Industries +0.31%, GE +0.25%, 3M +0.26%를 기록

하향 업종은**항공** (1주 -0.16%, 1개월 -0.13%)

제트유 가격이 정제마진 급등을 반영한 가운데 연료비 전가에는 한계가 있어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정유업종 상향의 반대 흐름을 나타냈으며 커버리지 내 해당 대형주는 없음. 이머징에서는 Air China가 +8.36%를 기록했으나 저기저효과에 따른 반등

교통인프라 (1주 -0.09%, 1개월 -0.12%)

물동량 우회와 항만 체선으로 처리량 전망이 하향

자동차 (자동차 1주 -0.07%, 자동차부품 1주 -0.06%)

Volkswagen의 가이던스 하향이 업종 전체를 끌어내림. Volkswagen -9.55%(1개월 -13.8%), Porsche -1.41%, Li Auto -35.2%(1개월 -70.1%)를 기록.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도 부담으로 작용한 반면 GM +0.22%, Toyota +0.20%, BYD +0.60%로 종목별 차별화

자동차부품 (1주 -0.06%, 1개월 -0.08%)

완성차 감소 영향이 부품업체로 이어짐. Porsche 4,000명, Volkswagen Group 5만명의 감원 계획이 부품 물량 가정에 반영

레저용품 (1주 -0.05%)

고금리 장기화로 내구소비재에 대한 선택적 지출이 위축

글로벌 주요 실적 리비전 종목(EPS 1주 변화율 기준)은

Boeing은 1주 +2.58%, 1개월 +15.5%. 9월 16일 대한항공으로부터 777-9 20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8대 등 총 103대, 리스트 가격 기준 362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확보. 다만 같은 날 Kelly Ortberg CEO는 Renton 공장의 날개 공정 병목으로 737 MAX 월 47대 생산 안정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 수주는 장기 백로그에 반영되지만 단기 인도와는 구분할 필요

Merck & Co.는 1주 +1.71%, 1개월 +7.9%. 투자의견이 비중확대로 상향됐으며 목표주가는 125달러로 제시. Keytruda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공백을 파이프라인이 메울 수 있다는 점이 근거. 1년 -18.1% 이후 반전 초입

Tokio Marine은 1주 +1.75%. 일본 손해보험 요율 인상 사이클이 반영됐으나 1개월 변화율은 +0.55%로 단주 이벤트 성격

Robinhood는 1주 +1.03%, 1개월 +5.5%, **Coinbase**는 1주 +3.49%, 1개월 +35.6%.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익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 Coinbase는 3개월 -27.6% 이후 방향 전환

LG에너지솔루션은 1주 +4.06%, 1개월 +19.4%로 이머징 상향을 2위를 기록. 대규모 ESS 수주를 기반으로 한 흑자 전환 경로가 반영됐으며 삼성SDI도 1주 +1.64%, 1개월 +9.1%로 동반 상향

이 밖에 Alibaba +1.11%, Synopsys +1.29%, Oracle +0.62%(1개월 +4.4%)를 기록

하향 주요 종목은 Investor AB -1.07%(1개월 -44.4%), SoftBank Group -0.30%(1개월 -20.9%, 3개월 -43.6%), EssilorLuxottica -0.95%, Goldman Sachs -0.66%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3Q26F OP 는 274조원(1W -0.3%, 1M +3.1%, QoQ +20.0%). **2026E OP**는 988조원(1W +0.1%, 1M -0.2%, YoY +229%). **3Q26F OP 상향 업종**은 건설, 2차전지, 조선, 반도체, 기계. **하향 업종**은 항공, 디스플레이, 증권, 유틸리티, 화학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3Q26F OP)는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화재, SK이노베이션, S-Oil 상향. SK, 한국전력, LG화학, 미래에셋증권, LG, 포스코퓨처엠 하향

3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알테오젠, HD현대, 한화솔루션, 피에스케이홀딩스, S-Oil, 파두, 심텍,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 테스, 두산밥캣, HD건설기계, 삼성전기, 하나마이크론, SK바이오팜, 원익IPS, DB손해보험, 삼성화재, L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S ELECTRIC, 현대해상, ISC, GS, 티씨케이, 아모레퍼시픽, HD한국조선해양, LG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한화엔진, 리노공업, 파마리서치, HD현대중공업, 하이브, 산일전기

외국인은 고금리 영향으로 중 소형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도. 코스피 4,900억원, 코스닥 2,000억원 순매도.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전기장비, 항공, 반도체, 가전. **순매도 상위 업종**은 유틸리티, 상호미디어, 건설, 기계, 상사

연기금은 고배당주와 가치주를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 코스피 2,600억원 순매도, 코스닥 340억원 순매수.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건설, 상사, 내구소비재, 가전, 기술하드웨어. **연기금 순매도 상위 업종**은 유틸리티, 상호미디어, 통신, 유통, 자동차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9월 28일(월)

주요 이벤트: 미·중 무역합의 세부 내용 발표 예정

29일(화)

경제지표: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오후 11:00) / 미국 8월 JOLTs 구인건수(오후 11:00) / 미국 7월 S&P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오후 10:00) / 캐나다 7월 GDP(오후 9:30)

실적발표: Carnival 장 시작 전

10월 1일(목)

경제지표: 미국 9월 ISM 제조업 PMI(오후 11:00) / 미국 9월 S&P 제조업 PMI 확정치(오후 10:45)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오후 9:30) / 미국 8월 건설지출(오후 11:00) / 한국 9월 수출입동향(오전 9:00) / 일본 3분기 단칸지수(오전 8:50)

실적발표: Nike(10월 2일 오전 5:15) / Accenture(장 시작 전, FY2026 4분기) / Conagra / Cal-Maine Foods

주요 일정: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휴장하며 8일 거래 재개

2일(금)

경제지표: 미국 9월 고용보고서(오후 9:30, 8월 비농업고용 +16만2,000명·시간당 임금 전년 대비 +3.1%) / 미국 8월 공장주문(오후 11:00)

다음 주 이후 주요 이벤트는 10월 5일 한국 증시 휴장, 10월 8일 중국 증시 거래 재개, 10월 9일 한국 증시 휴장, 10월 13일 주간 JP모건 등 대형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미국 3분기 실적시즌 개막, 10월 27~28일 FOMC, 11월 11일 MSCI 11월 분기 리뷰 발표 및 12월 1일 리밸런싱 적용, 11월 14일 3분기 13F 제출 마감

Quant Comment

지난 주말 VIX는 2.0%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16%로 5bp 상승, Term Premium은 0.73bp로 13.1% 상승, SOX는 1.1% 오르는 등 대체로 위험선호 심리가 부각

채권금리는 19년 만의 최고 수준. 9월 16일 FOMC에서 3년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 3.75~4.00%로 조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장기물에 집중. 주식시장은 금리 상승에도 올랐지만 금리 민감 업종의 이익 추정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Prologis는 리파이낸싱 비용 상승으로 FFO 추정치가 하향되며 1주 -3.1%, 1개월 -8.0%를 기록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비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3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에 합의. 중국은 농수산물·목재·화장품·의료기기, 미국은 소형가전·완구·카시트가 대상.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1,000만톤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했으며 희토류 문제는 미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 재개방과 7월 이내 핵협상 재개를 제안. 국제유가에는 하락 요인이지만 정제설비 복구 여부는 별개의 문제

Meta는 AI 에이전트 Muse 출시와 ChatGPT 이후 가장 빠른 채택 속도에 힘입어 주간 16% 상승. 실적 추정치도 +1.04%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내 유일하게 뚜렷한 상향을 기록. 반면 Alphabet -0.34%, Netflix -0.56%로 섹터 전체 변화율은 -0.02%

Akamai는 Anthropic과의 116억달러 규모 클라우드 계약에 힘입어 8.8% 상승

금리와 주식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AI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 고금리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배당락일은 29일 화요일. 배당 권리를 확보하려면 28일 월요일까지 매수해야 하며 3분기 배당수익률은 각각 1.6%, 2.0%로 추정